

젊어진 불교...남자 신도 늘어

한국갤럽 1984~2004년 종교실태조사 분석

남성불자와 젊은층의 불교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세가 높은 대구·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비해 약세를 보였던 호남지역 등이 지난 20년간 50~6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약진하고 불교는 계속 정체돼 종교의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윤승용 박사가 7월 20일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포교정책연찬회'에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종교실태조사' 결과를 분석·발

표한 서기 드러냈다. 종교실태조사는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 전국 만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녀 15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와 표본 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2.4%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전국 15세 이상 7만여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교인구가 1999년에 비해 2003년 53.6%에서 53.9%로 조금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불교

이 같은 남성불자들의 증가세는 탈산업화와 민주화 궤이며, 사회 주 활동층이던 남성들이 생산과 발전에 대한 욕구를 개인의 삶과 신앙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젊어지는 불교인구** = 연령별 종교인구 비율을 보면, 30대 이하 불교인이 1984년 20.4%에서 2004년 29.7%로 10%가량 증가해 불교가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0대 이하 개신교인도 40.0%에서 46.6%로 지난 20년간 6.6% 증가했다. 현재 30대 이하에서 불교와 개신교의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 종교별·성별 인구 증감추이 ◆ (단위:%)

종교	성별	2004년	1997년	1989년	1984년
불교	남자	20.3	12.3	18.1	14.0
	여자	28.4	24.2	23.6	23.1
개신교	남자	17.1	16.8	14.1	14.2
	여자	25.0	23.8	24.3	19.8
가톨릭	남자	5.7	-	-	4.1
	여자	7.7	-	-	7.1

◆ 지역별 종교인구 비율(2004년) ◆ (단위:%)

지역	전체	불교	개신교	가톨릭
서울	54.2	15.7	30.8	6.6
인천·경기	53.2	17.7	26.3	8.9
강원	42.2	20.5	16.3	5.3
대전·충청	57.1	24.2	22.6	8.7
광주·전라	47.0	18.8	17.9	7.9
대구·경북	50.8	33.4	11.1	5.6
부산·울산·경남	59.3	44.4	11.7	2.6

<한국갤럽 종교실태조사>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교전체 인구 중 30.9%가 9세 이하에 종교를 선택했다고 답해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계속 통합할 경우 불교 미래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사실로 입증됐다.

■**지역 불균형 심화** = 불교인구는 대부분 부산·울산·경남지역(44.4%)과 대구·경북지역(33.4%)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에 비해 강원 및 대전·충청지역 등이 14.4%에서 20.5%로, 28.8%에서 33.4%로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서울 및 경기지역 등은 15~17%대로 20년 전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인구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의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종교 무관심층 증가** =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7.3%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1984년 9.1%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또한 과거에 신앙 경험이 있다 대답한 비종교인 중 29.9%가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년 이상과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응답한 이는 그에 절반만 안 되는 9.8%와 15.8%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대체로 계속 그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

윤승용 박사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기독교 선교 모방이 아닌 한국 고유의 불교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연령과 성별, 계층에 걸맞는 체계적인 포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청와대 앞에서 단식시위중인 지을스님이 7월17일 전경에 떠밀려 실신한지 1시간만에 여경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고 있다. 사진제공=청년환경센터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정부 생각 참 안타까워”

‘지을 스님 생명 건 단식’ 현장

청와대 앞에서 단식 시위 중이던 지을 스님이 7월 17일 전경경찰에 의해 밀려 쓰러져 실신하는 사태를 계기로, 내원사 스님들이 지을 스님을 방문하는 등 천성산과 지을 스님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월 23일 현재 단식 24일째를 넘어서 지을 스님은 극도의 영양실조, 무대위와 싸우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의로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을 스님을 만나 단식을 하며 생각한 그동안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을 스님은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안타깝다'는 말로 입을 뗐다. "지난 7월 법원은 현장 조사 기간 동안 공사 중단을 권고했다. 그걸 구실로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비구니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추어져 천성산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길 바라지 않는다'며 '나는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 대한 산업을 과정에서 지나쳐버린 세월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결국 지을 스님은 "청와대가 계속 침묵한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며 "나 역시 신념에 따라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식에 임하는 자신의 의지를 담담하게 밝혔다.

지을 스님은 불교계의 도움에도 별반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였다. "불교계는 북한산 문제를 너무 잘못 처리했다. 천성산 문제도 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다. 수경 스님 같은 분들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숙생활의 어려움을 천성산 보존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어느 수녀의 도움으로 해결한다는 지을 스님의 이야기 속에는 불교계에 대한 섭섭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천성산 문제로 소원해진 은사 스님과 내원사 이야기로 넘어갈 때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무 많은 폐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님은 "내원사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은사 스님은 내가 단식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뜻을 전화로 여러 번 밝혔다. 그럴 때마다 신문에 내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면 죽은 줄로 알고 매정하게 대답한다"고 말했다.

7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일어나 경찰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비구니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추어져 천성산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길 바라지 않는다"며 "나는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 대한 산업을 과정에서 지나쳐버린 세월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으로 대신했다.

한편 제천절 날 발생한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을 계기로 불교환경연대, 조계종 불교환경위원회와 원우회를 비롯한 곳에서 우리의 뜻을 밝히는 성명서를 밝히는 등 지을 스님의 단식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7월 22일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내원사 주지 혜동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을 스님을 찾아왔다. 강유신 기자

이명박 시장의 '서울봉헌' 발언 물의는 7월 14일 이 시장이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사과의 뜻을 불교계가 7월 19일 범종교시민대회를 열고 '미흡하지만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시장의 사과가 내용과 형식상 '미안'에 그침에 따라, 불교계 내부에서는 예전처럼 목소리만 높이지 얻은 것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시장 사건과 같은 종교편향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작만 있었지 끝은 없다'는 불교계의 고집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였다. 120개 단체가 범불교대책위를 꾸리고 각 교구본사별로 항의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

이명박 시장 '서울봉헌' 형식적 사과로 일당락 불교계 대처 미흡 자성 목소리

러나 정작 응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범종교시민대회에는 300여 명의 불자만 참가했다. 자연히 맥이 빠졌고 더 이상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 중 하나다. 범불교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한창 이 시장의 퇴진을 포함한 사과를 요구하는 단계에서 한국 종교계 지도자 모임 이랄수 있는 KCRP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이 시장의 형식적인 사과를 인정해 버림으로써 변화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타종교인들의 정치적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KCRP 소속 개신교측은 교회 장로인 이명박 시장의 돕기 위해 12일 긴급 공동의장단 회의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불교계와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건을 조속히 덮으려 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지지하지 못한 것은 불교계의 미약한 대응력 때문으로 판단된다. 권택 부재도 한몫을 했다. 범불교대회 참

석자는 "불교계가 이 시장의 형식적 사과 이후 이에 대한 수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대중 동원 시기를 놓치면서 범불교대회의 파행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즉, 불교계가 사과 수위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이 시장의 완악한 사과를 이끌어나지 못한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표심'이다"며 "각종 선거에서 종교편향 행위를 한 정치인 중 한명을 집중적으로 낙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종교편향 제발방지 공문과 사례집을 보내 이번 사건을 선례로 남기는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성원토건 김성필(보산) 법무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십시오

“전법자들이여!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하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법을 부촉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법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법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시련과 좌절의 순간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주)성원토건 그룹 전 회장 김성필(보산) 불자는 우리 불교계가 백년에 한번정도 만날 수 있을까라는 평판을 받을 만큼 소중한 시주 인연을 맺어온 전법자라고 칭송받아 왔습니다. 그는 인연된 이웃에게는 물론이요, 성불복 소재 연화사 도량 뒤뜰에 찾아오는 새와 고양이에 개 먹이를 주는 장소에도 불(佛)자 및 만(仁)자를 새긴 팻말을 꽂아 놓고 '이차 불연(佛緣)으로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아 해탈하소서'라며 합장 기원을 할 정도로 전법에 앞장서는 불자입니다. 또한 노모이신 이 수련화 보살님의 사랑과 인도로 불연을 맺은 것을 늘 잊지 못하고, 어머니의 뜻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으며,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비행과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굳건한 불심(佛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불자 여러분!

두루 아시아시피 (주)성원토건은 85년 회사 정립 후 10여년 이상 꾸준히 번창하였고 그동안 불사 및 서민의 고통과 어둠을 해소하는 사회 환원 기증에 시가 수천억대에 달하는 청정 보시행을 앞장서 실천해 왔습니다. 김성필 불자와 그 가족들은 보시행을 함에 있어, 시주자와 시주를 받고 시주를 받는 자가 모두 청정해야 한다는 삼품정정의 보시정신을 한번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이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언론에 보도된 성원토건과 김성필 회장 관련 내용들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약력기증, 호화생활 등 보도된 내용들은 대부분 크게 부풀리거나 왜곡된 것들입니다. 보시행이란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불사의 의미까지 왜곡되고 오염되는 현실을 보면서 김성필 전 회장의 가족들은 오랜 고민 끝에 그 진실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성원토건 및 김성필 가족들이 행한 불사 및 사회기증의 수많은 선행, 공적들은 공적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당한 기업 이윤에 의한 청정한 불사(佛事)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과 불자들에게 불사와 기증문화에 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김성필 불자와 그 가족들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왜곡되고 부풀린 보도로 생겨난 일이지만,

이 보도가 (주)성원토건의 공적자금 문제로 인하여 불거졌고 결과적으로 송고한 불사의 의미를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비치게 한 데 대하여 김성필 불자와 그 가족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원토건은 결코 약덕기업이 아니라는 점, 김성필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온 신실한 불자라는 점을 알리고, 김성필 불자와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탄원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실의에 빠진 김성필 불자의 가족들은 다급한 마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법전 중정 큰스님, 원로의장이신 종산 큰스님, 총무원장 범장 큰스님을 찾아뵙고 용기를 내려주시길 것을 간청 드렸습니다. 큰스님들께서는 "이렇게 불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욱 살펴주어야 한다"며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서광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많은 사찰에서, 그리고 창원에 소재한 성원토건 기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이들 대령님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원토건과 김성필 전 회장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계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교계에서도 김성필 불자의 선처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수만 명이 탄원 서명에 동참하여 주셨고 지금도 계속 동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김성필 불자의 가족들과 김성필 불자의 조기석방을 바라는 불자 모임은 큰스님과 불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큰 위안과 용기를 받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성필 불자와 가족은 공적자금을 잘못 관리하여 국민과 불교계에 상처를 드린 것을 깊이 참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하여 언제까지나 드러내지 말아야 할 시주내용 불거피하게 거론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불자여러분!

저희들은 김성필 불자는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참되고 진실한 시주인연 전법 불자임을 믿습니다. 지난 IMF의 희생자로서 겪은 이번 일이 그에게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가 되도록, 또 그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청정 보시, 자비실천의 행자로, 진정한 21세기 급고독자로서 거듭 태어나 국기와 서민을 위한 전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지요.

나무마하반야바라밀

김성필(보산)불자 조기석방을 위한 스님과 불자모임 합장

연락처 : 02)3672-8165, e-mail : martian_plague@hanmail.net